

“광주 수돗물 제한급수 막자” 물 절약 캠페인 확산

공직자 500여명 시내 주요 거점서 캠페인...시의회, 시민 호소문
수압 낮추기·샤워 시간 줄이기·빨래 모아 세탁하기 등 생활팁 공유

극한 가뭄으로 내년 1월부터 제한급수 가능성<광주일보 2022년 11월 16일자 1면>이 제기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 등을 중심으로 물 절약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공직자 500여 명은 이날 시청 앞 사거리와 송정역, 종합버스터미널, 백운광장 등 시내 주요 관문과 거점 20곳에서 ‘생활 속 20%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했다.

공직자들은 수도 밸브 조절로 수압 낮추기, 샤워 시간 절반 줄이기, 빨랫감 모아 세탁하기, 양치 컵 사용하기, 양변기 수조에 물병 넣기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1인당 20% 이상 물을 아끼면 내년 6월 장마 시작 전까지 제한급수 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광주시 공직자들은 앞으로 자치구, 통장,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세대 방문 홍보 활동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캠페인에 동참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가뭄 대책 태스크포스 구성,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중장기적 대책으로 가뭄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전체 수돗물 소비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의 절수운동 참여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5일 문영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실·국과 13개 부서가 참여하는 ‘위기 대응 가뭄극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물 절약 실천을 위한 대책 등도 마련하고 있다.

문영훈 부시장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시민들이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돕는 것”이라며 “시 유관부서,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가동해 가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시민의 물 절약 실천을 당부하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광주시의 가뭄 대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의회는 호소문에서 “내년 3월에는 동북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물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하고 단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도 지난 15일부터 건강타운 이용 노인들과 함께 절수·절전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건강타운은 싱크대 헤드, 샤워 헤드, 변기 등을 절수형으로 교체하고 설거지 모아서 하기, 싼뜨물 재활용 등을 실천 중이다.

한편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은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72%)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가뭄이 계속되고 시민의 물



16일 오전 광주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회원 30여명은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은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72%)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가뭄이 계속되고 시민의 물

절약 실천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제한급수와 함께 단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

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뭄 절수 대책 필요·광주전남연구원 분리를”

전남도의회 정례회...나광국·박종원 도의원 5분 발언

전남지역 도의원들이 가뭄에 따른 지역민 불편이 없도록 절수운동을 벌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여수공항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더민주·무안2) 의원은 이날 열린 ‘제 36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14일 기준 전남지역 4대 광역상수원 평균 저수율이 35.4%로 수돗물 공급 가능일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라며 “전남도는 당장 실천 가능한 절수 대책을 홍보해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에 대한 도민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

는 만큼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가뭄 대비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전남 일부 섬에서는 제한 급수를 하고 있고 고흥군에서는 저수지와 웅덩이가 말라 10월에 심었던 양파가 자라기도 전에 말라가고 있다”면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 절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제기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박종원(더민주·담양 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연구원은 군공항 이전, 나주 SRF 문제 등 광주·전남 공동 현안 과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면서 “양 사·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나해와 올해 수행한 연구과제의 10~17% 수준이 광주·전남 상생과제”라며 “10%대 상생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됐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강문성(더민주·여수 3) 의원은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열리고 오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제 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국제선 운항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지후 기자 dok2000@

전남도·해남군, 지상·공중 산불진화 합동훈련

소방·경찰·군 등 유관기관과 현장 대응 협력체계 강화

전남도가 16일 해남군과 공동으로 해남 우של경기장 일원에서 지상, 공중 진화자원을 총동원한 ‘2022년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대형산불 위험성을 알리면서, 신속

한 진화에 따른 소방, 경찰, 군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전남도, 해남군 및 유관기관·단체, 도내 22개 시·군 산불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

은 대형산불 확산 상황을 가정해 산불 신고부터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과 마을 주민 대피 안내문자 발송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실천처럼 진행했다. 산불진화 헬기 3대, 산불진화차, 소방차 등 차량 9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7개 조 등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대형산불 신속진화 훈련을 펼쳤다. 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변화하는 산불 상황에 대응하는 현장지휘 훈련도 함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전남도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1918명 1702억원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6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도·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체납액 99억원)을 행정안전부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남도도 이날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648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793억원 규모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도·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

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도·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광주시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는 225명(법인 78명, 개인 147명) 체납액은 86억원이며, 지방행정제도·부과금 명단 공개 대상자는 45명(법인 9명, 개인 36명)으로 체납액은 13억원이다.

전남도 명단 공개 대상자는 1614명으로, 개인은 1072명 체납액 403억원, 법인은 542명 356억원이다. 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246명 76억원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익문 광주도시철도공사 신임 사장 내정

광주시는 16일 “광주도시철도공사 제8대 사장에 조익문(61) 전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면접 심사를 거친 후보자 2명을 지난 11일 추천받아 자격 여부 검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조 전 상임감사를 낙점했다.

조 내정자는 ▲한국토지공사(LH) 지역발전협력담당 ▲(주)세종커뮤니케이션 대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과 민간기업, 국가 공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해 기업경영 역량과 현안 해결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시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고 다음 달 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2) 464 - 9190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